

C. S. 루이스를 통해 본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

송태현(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에서 우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인 C. S. 루이스의 사상에 나타난 기독교와 신화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C. S. 루이스의 지적 혹은 영적인 이력 속에 신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한 뒤, 이어서 이교 사상과 신화에 대한 C. S. 루이스의 견해를 개관하고, '참된 신화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인 기독교의 성격을 고찰하고, '죽고 부활하는 신'을 다루는 신화가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교 신화는 죽는 신(dying god), 죽음과 재생, 인간이 진정으로 살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루이스는 이러한 신화들과 기독교의 유사성을 태양과 연못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이교 신화가 어렵듯이 예견해 왔던 죽고 부활하는 신인(神人)은 후일 '완전한 신화이자 완전한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현되었다. 기독교는 신화인 동시에 역사이다. 기독교는 원형적인 신화로서 다른 모든 신화들은 다소간 그 신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타종교나 이교신화의 가치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인정한 점에서 C. S. 루이스는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타종교와 갈등을 겪는 한국 교회에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도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주제어 : C. S. 루이스, 기독교, 신화, 이교 신화, 신화와 역사, 죽는 신

- I.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C. S. 루이스
- II. 루이스의 회심과 신화
- III. 이교 사상과 신화에 대한 C. S. 루이스의 견해
- IV. 기독교 : 역사와 신화
- V. 좋은 꿈(good dreams): 죽고 부활하는 신 이야기
- VI. 맺음말

I.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C. S. 루이스

C. S. 루이스(1898-1963)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이다. 루이스는 평생 약 40권의 저서를 출간했고, 그 외에도 그의 다양한 글들(시론, 편지, 시)이 사후에 20여권의 선집으로 출간되었는데, 루이스의 책은 오늘날에도 연간 600만 부 정도가 팔리고 있을 만큼 기독교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C. S.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한 그곳에서 약 30년간 영문학을 가르쳤다. 말년에는 케임브리지(모들린 칼리지)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담당교수로 봉직하게 된다. 『16세기 영국 문학』, 『비평의 실험』,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연구』와 같은 저서들을 통해 영문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학자였던 C. S. 루이스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별 탈주』를 비롯한 우주 소설 3부작 등 기독교적 관점에서 판타지와 과학소설(SF)을 쓴 작가였으며,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의 기독교 변증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그는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문필가들 그리고 예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온 저명한 사상가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지향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가장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 학자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17세 되던 해에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며 기독교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패커는 루이스를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렀다. 한편, 루이스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행한 콜린 듀리에즈는 이 작가를 가리켜 “20세기의 존 번연”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10인』에서 초대 교회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열 명의 기독교 사상가를 다루고 있는데, 20세기 사상가로 칼 바르트와 C. S. 루이스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영성신학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도 『리처드 포스터가 묵상한 신앙 고전 52』에서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52권의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루이스 대 프로이트』의 저자인 아맨드 니콜라이는 루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명사이고 문학비평가이며 아마도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이성에 기초한 신앙 옹호자인 루이스는 작고하기 오래 전에 이미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방송 강연을 했기 때문에 루이스의 목소리는 BBC 방송에서 처칠 수상 다음으로 널리 알려졌다. 전쟁이 끝나고 2-3년 후 <타임>의 표제 기사는 루이스를 영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자라고 했다. 저서들은 꾸준히 엄청나게 팔렸고 그의 영향력도 계속 커져 왔다.”(Nicholai, 2004: 12) 또한 버슨과 월스도 C. S. 루이스를 프랜시스 웨퍼와 함께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로 소개하고 있다(Burson & Walls, 1998).

제럴드 리드는 『C. S. 루이스를 통해 본 거룩한 삶』에서 “어떤 기독교 작가도 이만큼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이처럼 널리 읽힌 적이 없다.”라고 평가한다(Reed, 2006: 9). 그리고 라일 도잇은 『C. S. 루이스의 영성』에서 “20세기 영어권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C. S. 루이스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지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1958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415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이 선교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50%가 “C. S. 루이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Dorsett, 2006: 28).

루이스의 영향력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하다. 그의 판타지 작품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2005년 영화화되었고, 이어서 『캐스피언 왕자』도 2008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또한 『새벽 출정호의 항해』도 현재 제작되고 있기에, 앞으로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는 자신의 내부에 기독교 변증가, 문학평론가, 작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가로서의 나’라고 밝힌다 (Duriez, 2005: 10).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작가로서 루이스는 이교 사상 혹은 이교 신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청소년기에 『지그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을 읽은 이후로 루이스는 북유럽 신화를 비롯한 신화의 세계에 빨려 들게 되었고, 회심한 후에도 그는 신화 속에서 이교의 지혜에 대해 성찰하며 이교의 상상력이 복음의 빛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했고, 또한 이교 신화가 기독교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갔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C. S. 루이스의 지적 혹은 영적인 이력 속에 신화가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한 뒤, 이어서 이교 사상과 신화에 대한 C. S. 루이스의 견해를 개관하고, ‘참된 신화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인 기독교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어서 ‘죽고 부활하는 신’을 다루는 신화가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루이스의 회심과 신화

루이스가 그렇게 지속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적 혹은 영적인 독특한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회의론자들의 사도(apostle to the skeptics)’라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신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방황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역정을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이라는 ‘영적 자서전’ 속에 솔직히 담고 있다.

C. S. 루이스는 부모로부터 성공회 신앙을 물려받았다. 루이스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 받을 때 그는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 이후 학교 교육을 통해 신앙을 회복한 경우도 잠시 있었지만 그는 오랜 세월을 무신론자로 남아 있었다.

『순례자의 귀향』 제3판 후기(後記)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지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대중적인 실재론(popular realism)에서 철학적인 관념론(Philosophical Idealism)으로, 관념론에서 범신론(Pantheism)으로, 범신론에서 유신론(Theism)으로, 유신론에서 기독교(Christianity)로(Lewis, 1992: 200).

10대 소년 시절에 에이츠와 메테를링크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의 주된 지적 입장은 유물론이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는 버클리의 유신론적 관념론, 베르그송의 진화론적 관념론, ‘영국 헤겔학파’의 관념론 등에 경도되었다. 다양한 관념론에 대해 공부하는 가운데 루이스는 브래들리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영국 헤겔학과 철학자의 사상은 힌두교의 브라흐만-아트만 사상과 유사한 범신론적인 사상이다. 즉, 브래들리의 철학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자는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자연에 내재한 존재이기에 루이스는 이를 범신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Downing, 2003: 145-146).

루이스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작가는 조지 맥도널드(George Macdonald, 1824~1905)이다. 열여섯 살 때 루이스는 교외의 기차역에서 조지 맥도널드의 『팬타스티스 Phantastes』를 구입한 후, 기차를 타고 기숙학교에 돌아와 그날 밤 그 작품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날 밤, 나의 상상력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 (...) 나의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Lewis, 1955: 181).

루이스가 맥도널드의 작품을 읽는 즉시 기독교로 회심한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와 함께 에드먼드 스펜서, 밀턴, 존 번연, 조지 허버트, 체스터턴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의 옛 신념과 철학은 조금씩 무너졌다. 처음에는 이들 작가의 기독교성을 싫어하였지만 작품들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유신론으로 향해 갔고, 종국에는 기독교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다.

루이스가 결정적으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 것은 신화를 주제로 톨킨과 대화를 나누면서이다. 톨킨과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함께 영문학을 가르쳤던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Duriez, 2005). 이들은 ‘잉클링스(Inklings)’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회원 자신들이 쓴 작품을 낭독하고 토론했다. 이 모임을 통해, 루이스와 톨킨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게 되었고, 이는 결국 조지 맥도널드에게서 시작된 영국 환상문학의 전통을 『해리포터』와 같은 현대 영국 환상문학으로 연결시켜 준 중추적인 역할을 한 모임이 되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톨킨은 신화와 기독교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루이스를 기독교 신자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루이스는 지적으로 유신론자가 되긴 했으나, 여전히 복음서와 신화의 신빙

성에 대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1931년 루이스는 톨킨과 밤늦게 강가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날 밤 톨킨은 루이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는 비록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빛,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실에서 떨어져 나온 단편을 반영하고 있다. 신화를 창작함으로써, 부(副)창조자가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은 타락 이전에 경험했던 온전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신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험한 폭풍 속에서도 진실의 항구를 향해 나아간다 (Carpenter, 2000: 151).

함께 산책을 나갔던 다이슨도 톨킨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루이스는 이들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정한 신화임을, 다시 말해 다른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신화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신화라고 이해했다. 이로써 루이스는 이교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데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루이스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실행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 그는 『순례자의 귀향』을 필두로 계속 기독교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그의 신앙은 지적인 혹은 이론적인 작업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는 저서들에서 받은 인세의 3분의 2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2차 대전 동안 루이스는 한 정신박약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살기도 했는데, 그 청년에게 매일 저녁마다 철자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에 등장하는 퍼벤시가의 네 아이 이야기도 실제로 2차 대전 동안 루이스가 자신의 집에 어린 소녀 넷을 영접했던 경험에서 출발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아이들에게 해줄 적절한 이야깃

거리를 찾다가 결국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말년에 루이스를 태우고 다녔던 전담 택시 기사는 자신이 만나본 사람 가운데 루이스가 가장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으며, 루이스는 아내가 죽은 후 이 택시 기사와 한동안 함께 기도하는 사이로 지내기도 했다. 글뿐 아니라 강의와 강연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루이스는 교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경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했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다시 말해 루이스는 특정 교파의 교리 혹은 특정 개인의 신학관보다는 각기 다른 전통의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기독교, 즉 ‘순전한 기독교’를 강조한 것이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다루었던 내용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III. 이교 사상과 신화에 대한 C. S. 루이스의 견해

C. S. 루이스 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교 사상이 지닌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한 점이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타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세상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점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Lewis, 2001: 69).”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는 이전의 무신론자 시절보다 타종교에 대해 좀더 개

방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말들로써 우리는 C. S. 루이스가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루이스는 만민구원설(universalism)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Kilby, 1976: 50). 루이스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임을 믿는다. 그렇지만 타종교 혹은 기독교 이외의 사상에도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도덕률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각 문명과 각 시대의 도덕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차이가 못 되며, 각 문명권의 도덕들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루이스는 『인간 폐지 The Abolition of Man』 부록에서 그 증거들을 모아 놓았다(Kilby, 1976: 50).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편린(片鱗)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다고 보았다. 루이스의 이러한 사상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말한 암브로시오의 사상과 연결되며, 기독교 이외의 사상에서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환영해야 한다는 칼뱅의 사상과도 연결된다. 또는 루이스의 사상은 타종교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일반은총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본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칼뱅주의자들의 ‘일반은총’ 사상과도 통한다.

기독교가 옳다고 해서 타종교가 전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루이스는 산수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산수 문제에서 정답은 오직 하나일지라도, 오답 가운데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가 타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타종교는 그르다고 보았다(Kilby, 1976: 70).

이교 신화에 대해서도 그는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루이스는 『기적 Miracles』에서 신화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찬동하지 않음을 밝힌다(Lewis, 1996: 176).

- a. 신화는 오해된 역사(misunderstood history, Euhemerus의 견해)이다.
- b. 신화는 악마적 환상(diabolical illusion, 일부 교부들의 견해)이다.
- c. 신화는 성직자들의 거짓말(priestly lying,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는 오랫동안 북유럽 신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신화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고대 신화가 설화, 알레고리, 의식(ritual),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인간의 마음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동시에,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요소 다시 말해 악마적인 요소와 신성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신성한 요소는 복음을 위한 준비(preparatio evangelica)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Lewis, 1995: 132).

IV. 기독교 : 역사와 신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화를 ‘허구’ 혹은 ‘거짓된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반인의 신화관에 대하여 ‘비신화화(非神話化)’를 제창한 루돌프 볼트만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으로 인해 신화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역사적 기독교 교의는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화에 대한 이중적인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역사와 신화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가령 ‘A는 역사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성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B는 신화이다’라고 말할 때 B는 허구이므로 그 사실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경우 대개 A는 긍정적으로, B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루이스의 글을 읽을 때, 신화에 대한 그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기에 주의해야 한다. 회심한 이후에 루이스가 부여하는 신화에 대한 의미는 신화에 대한 원래적인 의미, 즉 ‘신성한 이야기’에 가깝다.

회심하기 전에 루이스는 신약의 예수 이야기가 발데르, 아도니스, 바쿠스 등 이방신화의 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화와 기독교에 대해 깊이 고찰하면서 그는 복음서가 일반 신화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복음서는 분명 역사적 주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반 역사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루이스는 복음서의 그러한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서에는 신화의 풍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주변 이교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신화의 보고 寶庫를 접하지 못했던 편협하고 매력 없는 유대인들—이 기교 없이 역사 서술 방식으로 써 내려간 그 제재야말로 위대한 신화의 제재, 바로 그것이었다. 신화가 사실이 된다면, 신화가 성육신한다면 바로 이런 형태일 것이다. 어떤 문헌을 봐도 복음서와 닮은 것은 없었다. 신화는 일면 복음서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역사도 일면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서와 꼭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Lewis, 2003: 337).”

이 말은 복음서가 신화와 역사에 대해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연속성에 관한 언급이기도 하다. 『피고석에 선 하나님 God in the Dock』에서 루이스는 신화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인 기독교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이기도 한 신화이다. 죽는 신에 대한 오래된 신화는 여전히 신화로 남은 채 전설과 상상의 하늘에서 역사의 땅으로 내려온다. 그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 일어나고, 정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과들이 뒤따른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발데르나 오시리스를 지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모두 정해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인물에게로 간다. 그것은 사실이 되고서도 변함없이 신화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동의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화에 부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신화(이미 사실이 되어 버린) 또한 받아들이야 한다(Lewis, 1995: 66-67).”

루이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진실한 신화(true

myth)이다. ‘진실한 신화’는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모순어법(oxymoron)이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이 신화인데, 그것은 사실이기도 한 신화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완전한 신화인 동시에 완전한 사실(Perfect Myth and Perfect Fact)’이다. 그리스도 이야기는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실제로 일어난 진실한 신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분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스도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신화이다.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순신은 죽었으나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긴 하지만 예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해 그 역사적 사실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 신화를 받아들인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신화인 동시에 완전한 사실’을 구현하신 그리스도께 사랑과 순종을 바치는 동시에 경이와 환희로써 대해야 하는 이유이다(Lewis, 1995: 66-67).

V. 좋은 꿈(good dreams): 죽고 부활하는 신 이야기

『순전한 기독교』에서 C. S. 루이스는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네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Lewis, 2001: 90-91).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남겨 주셨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왔다. 물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하나님은 ‘좋은 꿈(good dreams)’을 인류에게 보내 주셨다. 좋은 꿈이란 “어떤 이방 종교에든지 다 퍼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킨다.

셋째,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머리에 심어 주셨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며, 그렇게 심어 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루이스의 독특한 관점은 ‘좋은 꿈’, 즉 ‘죽고 부활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부여하신 것처럼, 인류에게 ‘죽고 부활하는 신’이라는 ‘좋은 꿈’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 ‘죽고 부활하는 신’ 개념은 매우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루이스의 관점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충격을 준 바 있는 『예수는 신화다 The Jesus Mysteries』(1999)라는 책의 저자들의 핵심적인 주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의 출발점은 예수 이야기와 이교도 신화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유사성의 발견이다(Freke & Gandy, 1999).¹⁾ 저자들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예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메시아의 전기(傳記)가 아니라, 이교도의 유사 깊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삼아 창작한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각색된 고대 이교도의 미스테리아(mysteria) 신앙이라는 것이다.

미스테리아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전승되어온 의식과 신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죽고 부활하는 신인(神人, godman)과 관련되어 있다. 미스테리아 신인에 대한 최초의 신화는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이다. 이 오시리스 신화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신이 디오니소스이다. 지중해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집트의 미스테리아가 유입되어, 각각 자신들의 토착신 가운데

1) 이 글의 한글판은 다음과 같다: 『예수는 신화다』(서울: 동아일보사, 2000). 한글판은 한기총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절판되었다.

하나를 변형시켜 죽었다가 부활한 미스테리아 신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로 변용된 이집트의 오시리스는 소아시아에서 아티스, 시리아에서 아도니스, 이탈리아에서 바쿠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불리었다. 이들 신인들은 그 형태는 각각 달랐으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신화적 존재였다.

저자들은 유대인들도 지중해 인근의 타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교도의 미스테리아를 받아들였고, 기존의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를 자신들의 신화로 각색했다고 주장한다. 그 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신인(神人) 예수라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유대인 미스테리아 입문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가르침을 위해 꾸며낸 신화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사실 고대 이집트와 아시아의 여러 문명권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 개념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제임스 프레이저가 『황금 가지 The Golden Bough』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이다. 루이스도 이 책을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사성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루이스는 『예수는 신화다』의 저자들과 견해가 달랐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화에 걸쳐있는 신화적인 광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와 이교 사이의 ‘유사성’과 ‘이교의 그리스도(Pagan Christs)’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리스도와 이교신들 사이의 유사성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며, 오히려 그러한 유사성이 없다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Lewis, 1995: 67). 루이스는 그 유사성이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확인해 준다고 보았으며, 이교 신화학자들은 그들도 잘 모르는 동안에 복음을 예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만년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높은 산일수록 초봄에 더 오랫동안 눈이 쌓여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일 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 그가 상상한 산과 실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몽블랑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플라

톤의 『국가』에서 소개되어 있는 ‘동굴의 죄수’ 비유-어릴 적부터 온몸을 결박당한 채로 동굴에 살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 참 세계를 보았으나 그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동료 죄수들을 참 세계로 인도하려 했을 때 동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여 버렸다는 이야기-를 읽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수난을 연상하게 된다. 루이스는 플라톤의 동굴 죄수 비유와 그리스도 수난이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았다.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숭배자들과 자연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여러 이교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날마다 일어나는 밤과 낮의 교체, 해마다 일어나는 작물의 죽음과 재생, 그러한 과정들이 일으킨 신화들, 인간 자신도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종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이교의 여러 ‘비밀 제의 Mysteries’ 속에 구현되어 있는) 그 명료하지는 않지만 강렬한 느낌, 이런 것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근원적 진리에 대해 허락하신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들과 기독교 진리의 유사성은 태양과 연못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 사이에, 현실세계의 나무와 언덕들과 꿈속의 나무와 언덕들 사이에 있는 유사성과 마찬가지로 전혀 우연이 아니다(Lewis, 2004: 151).”

C. S. 루이스는 이교 신화들과 기독교의 유사성을 플라톤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태양 자체와 연못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 관계로 이해하였다.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이교 신화의 창조자가 기독교 복음과 유사한 내용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압력(pressure from God)’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교 신화에 어렴풋이 담겨 있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 관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VI. 맺음말

이교 신화는 죽는 신(dying god), 죽음과 재생, 인간이 진정으로 살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Kilby, 1976: 150). 북유럽의 발더,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등의 신화들이 그 예이다. 루이스는 이러한 신화들과 기독교의 유사성을 태양과 연못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자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동일한 요소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루이스는 보았다.

이교 신화가 어렴풋이 예견해왔던 죽고 부활하는 신인(神人)은 후일 ‘완전한 신화이자 완전한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현되었다. 이교 신화 창조자들이 이러한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압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압력 속에서 특별 은총, 특별 계시가 없었던 이교 신화 창조자들이 신성한 진리의 미광(微光, gleam)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신화의 역사적 구현’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는 원형적인 신화로서 다른 모든 신화들은 다소간 그 신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다. 왜냐 하면 고대 신화에는 실제 역사, 알레고리, 의식(ritual),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인간의 마음 등의 혼합물과 초자연적인 요소(악마적인 것과 신성한 것)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이 가운데 신성한 요소는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타종교나 이교신화의 가치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인정한 점에서 C. S. 루이스는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타종교와도 갈등을 겪는 한국 교회에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도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또한 루이스는 우리가 이교 사상이나 신화를 읽을 때, 그리고 신화에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예술인 판타지 작품을 대할 때 그 속에 예술적인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성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악마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구분해 가며 독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참고문헌

- Burson, S. R. & Walls, J. L. (1998), *C. S. Lewis & Francis Schaeffer: Lessons for a New Century from the Most Influential Apologists of Our Time*, Downers Grove: IVP.
- Carpenter, H. J. (2000), *R. R. Tolkien : A Biography*, New York : Houghton Mifflin.
- Dorsett, L. (2006), 오현미 옮김, 『C. S. 루이스의 영성』 서울: 진흥.
- Downing, D. C. (2003), 강주현 옮김, 『반항적인 회심자 C. S. 루이스』 IVP.
- Duriez, C. (2005), 이용복 옮김, 『나니아 연대기 해설집』 서울: 규장.
- _____ (2005), 『루이스와 톨킨』, 서울: 홍성사.
- _____ (2000), *The C. S. Lewis Encyclopedia*, Weaton: Crossway Books.
- Freke, T. & Gandy, P. (1999), *The Jesus Mysteries*,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Hein, R. (1998), *Christian Mythmakers*, Chicago: Conerstone Press.
- Kilby, C. S. (1976), *The Christian World of C. S. Lewis* (Grand Rapids: Eerdmans).
- Lewis, C. S. (1992), *The Pilgrim's Regress*, Grand Rapids : Eerdmans.
- _____ (1955), *Surprised by Joy : The Shape of My Early Life* , New York : Harcourt Brace & Company.
- _____ (2003), 강유나 옮김, 『예기치 못한 기쁨』 서울: 홍성사.
- _____ (2004), 이종태 옮김, 『시편 사색』 서울: 홍성사.
- _____ (1995), *God in the Dock* , Grand Rapids : Eerdmans.
- _____ (1996), *Miracles* , New York: Touchstone.
- _____ (2001), 장경철·이종태 옮김,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 _____ (2006), 『인간 폐지』 서울: 홍성사.

- Nicholai, A. M. (2004), 『루이스 대 프로이트』 서울: 홍성사.
- Reed, G. (2006), 조혜정 옮김, 『C. S. 루이스를 통해 본 거룩한 삶』 서울: 진흥.
- Schakel, Peter J. (1984), *Reason and Imagination in C. S. Lewis*, Grand Rapids: Eerdmans.
- Schultz, J. D. & West Jr, John G. (1998), *The C. S. Lewis Reader's Encyclopedia*, Grand Rapids: Zondervan.

Abstract

**Myth and Christianity Through the Eyes
of C. S. Lewis**

Tae Hyeon Song(Baekseo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myth and Christianity through the eyes of C. S. Lewis. Pagan mythology is replete with the dying god, with death and rebirth, and the idea that man must undergo death if he would truly live. The resemblance between such myths and Christian truth has the same relation as the sun and its reflection in a pond. The god-man which pagan mythology anticipated is realized in Jesus Christ, 'Perfect Myth and Perfect Fact'. At the heart of Christianity is a myth that is also a fact. Christianity is a archetypical myth, and other myths are contorted images of it. By confessing clearly the uniqueness of Christianity, and by admitting partial truth of pagan mythology, C. S. Lewis present us a new way to understand and accept culture of pagan thought.

Key words : C. S. Lewis, Christianity, myth, pagan mythology,
myth and history, dying god